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 선제 대응 필요

전북연구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성 · 실천과제 제안... 도·시군 협력 공동 대응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권계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를 2023년에 5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직 정부의 세부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3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제1차 도시 지정(강릉시, 서귀포시)에

그쳤던 스포츠 지정사업(스포노미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장세길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군별 적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을 참조하면, 1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5만~50만 명 미만으로,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 포함된다.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로,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범위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혹은 동·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거나 개최 예정인 도시

를 말한다.

장 연구위원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바스켓볼대회(2023)의 종목별 경기가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열리도록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 시설 전체 면적이 13만㎡ 이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 이상으로 이에 대한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나 전라북도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도에 뒤처지므로 도시군이 힘

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에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전이라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16년 추진 사업 기준에 따르면 전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1단계 연구 기준에서 탈락함에 따라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사업이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인구 5만 명 미만인 도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 공모 도·시·군 함께 60억원 투자... 급속 충전시설 100기 확충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지난 15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공포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과도기인 지금, 전기차 보급을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풀이된다.

먼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감축된다.

이어,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강화한다.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존건물은 2%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급속 충전시설의 증가를 위해 충전시설 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공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을 확대해 올해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읍·면·동 등 전기차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기반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한국 잼버리 · 프레잼버리 대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

내달 2일 예정 대회, 참가 청소년들 건강 · 안전 우려로 취소 결정

'제15회 한국잼버리 결 프레잼버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소됐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다.

(재)2023 새민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문덕 국회의원, 이하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 내 일부 구역에서 개최할

예정되었던 '제15회 한국잼버리 대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취소 결정에 앞서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 연맹 등 유관기관과 질병관리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의 긴급회의를 가졌으며, 관계기관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이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증가 추세로 각종 위험도 평가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잼버리 행사 자체가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청자의 다수가 행사 직전에 참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조직위원회는 관계기관 긴급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취소 결정 사실을 국내·외 참가자들에

게 신속하게 알려 행사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원회 최창행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프레잼버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반시설 구축 등 내년 세계잼버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기업 모집

내달 5일까지 추가 접수 진행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을 8월 5일까지 추가 모집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에너지 기술개발 및 R&D 사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고 도내 에너지 기업 육성발판 마련을 위한 취지로 올해부터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신재생에너지산

업 또는 연관 전후방 기업으로,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전라북도 내 본사,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한 기업이다. 향후 융복합단지 내 투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개발 및 실증 3개 분야로 이번 공모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 시 최대 3,500만 원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b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에너지산업진흥팀(063-580-1431)으로 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현장점검 실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장 · 봉동 배수장 방문... 수리시설 관리 · 점검 강화 당부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장과 봉동 배수장을 찾아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신 국장은 먼저 익산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장을 방문해 그간 추진실적과 우기 전 활용 가능한 배수장과 배수로의 정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배수로 말단부와 펌프시설 등을 점검하며 배수 흐름 저해 요소와 작업 인부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방문한 익산 봉동배수장에서는 도내 배수장 설치현황과 우기철 대비 사전 가동훈련 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배수장 · 유수지 정비 여부', '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비상



군무 매뉴얼 정비', '침수대비 이중화 비상전원시설', '가동펌프 및 제진기 작동 유무'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가정한 중앙상황실의 원격제어 가동 시연을 함께하며 추가적인 보완점과

시설물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에 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는 물론, 재해대책기간에도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로 재난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국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5개 지구 5,861ha에 711억 원을 투자해 진행 중이며, 활용 가능한 배수장과 배수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해 농경지 침수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여름철 호흡기 질환 '레지오넬라증' 주의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증식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상 검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이 여름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호흡기 흡입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대형 목욕탕의 욕조수, 숙박시설의 온·냉수 분수 등으로,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로 확인될 시,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점검 후 1~2주 이후에 재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레지오넬라증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독감 형태(코타와 열)로 발현하여 2~5일 후 호전되지만,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발열, 오한, 기침 등으로 시작해 의식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레지오넬라균은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우리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가 중요하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매일 특약강사
- 한·스피치 · 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0주년 및 30년, 40년 특강 및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정리서사 · 심리상담사
- 개성 "665 스포츠 지역유니캐이션", "나쁜 배운, 뽀, 뽀"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 15만원
- 문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지능력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